

기관소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식생활 교육 전문도서관 개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 등에서 개발하여 배포되고 있는 다양한 식생활교육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전문도서관’ 누리집을 5월 15일(목)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식생활 교육 전문도서관’은 국내외 정부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기업 등이 제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식생활 교육에 종사하는 현장 활동가나 학부모, 교사, 연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

그동안 식생활 교육 관련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일선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이 용

이하지 않았던 점 주목하여 관련 자료를 주제별 · 교육대상별 ·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다른 기관과 단체의 식생활 교육 관련 자료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외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누리집(www.foodedulib.or.kr/mIndex.do) 형태로도 기능도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식생활 교육 전문도서관’을 통하여 더욱 우수하고 신뢰도 높은 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월 ‘우수 교육사례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소비정책과장은 “식생활 교육 전문도서관이 식생활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대학교와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경북대학교(총장 함인석)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같은 국가재난형 동·식물 질병방역, 검역 및 농·축산물의 안전 등 상호관심 분야에 대한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5월 15일(목) 경북대학교에서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함인석 경북대학교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연구 수행, 전문인력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관심 분야에 대한 학술·기술정보 교환을 증진하고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학술활동에 상대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추후 학·연 협동 학위과정 개설 등의 논의를 통해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AI 등 방역현장에서 필요한 연구 및 상호관심 분야에 대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험 연구 사업에도 경북대학교 교수 등 우수한 전문 인력을 참여케 함으로써 원활한 기술교류로 우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함은 물론,

연구결과를 국가 방역·검역 현장 및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용하게 된다면 양 기관의 발전과 국민 건강 및 국익을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1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해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식품안전을 넘어 ‘안심’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지난 5월 14일 충북 오송 C&V센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주방문화개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 관련 동영상 상영하고 식품안전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식품산업과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주)동서 김상헌 회장에게 동탑산업훈장, (주)서흥갑셀 박금덕 부사장에게 산업포장, 부산소비자연맹 김향란 회장 등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 되는 등 각계 인사 17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

뮤지컬 공연, 식품안전 국민참여 공모전, 건강견
기대회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같
이 진행됐다.

식품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 뮤
지컬 ‘나란히 떡볶이 가게’를 광주를 시작으로 부
산, 서울(5월 21, 22일), 대전(5월 23일) 지역예
서 총 5회에 걸쳐 공연했으며, 식품안전 국민참여
UCC 및 수기 공모전도 5월 16일까지 진행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기원하는 건강견기대회를 5월 25일 남산
국립극장 문화장광에서 개최했다. 이날 견기대회
에서는 HACCP, 식중독 예방, 어린이급식지원센
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홍보
를 진행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식품안전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정승 처장은 제1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사를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와 식생활 변
화에 따른 급식위생 및 영양 관리를 강화하며, 음
식점 주방문화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 시켜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업농신문 [2014. 05. 16]

농촌진흥청

현장 중심의 축산 새기술 보급 기반 확대
축산연구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실증시험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분야 연구결과 개
발된 새기술과 축종별 사육현장에서 농업인이 요

구하는 기술들의 실용화를 위해 현장실증시험 8
개 과제를 전국 20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현장에서 실증시험을 추진하게 된 8개
과제들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012년 이후 연구
개발한 영농활용기술 중에서 엄선된 새기술 10과
제와 축산현장의 필요기술 분야 4개 과제를 대상
으로 축산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으로부터 기
술적용성과 현장파급효과를 반영해 선정한 과제
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새기술의 현장실증
분야로는 한우 미경산우 비육기술, 육우 송아지
생산 기술, 돼지 IRG 펠릿급여 약취저감 기술, 모
돈의 동물복지형 사양관리 기술, 토종 ‘우리맛오
리’ 생산기술 등이다. 한 축산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기술로는 젓소 우사 사육환경 개선 생산성 향
상 기술, 산란계의 환경 친화적 안정 사육기술, 사
료작물 작부체계와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조사료
최대생산 기술 등이다. 축산현장에 중점을 둔 실
증시험에 참여하는 대상 농가들은 시·군농업기
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축산전문가로 구성된 심
의위원회에서 선정됐고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송용섭 기술지원과장
은 “축산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
에 적용된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
완해 완성된 기술들은 지역별 축산농가를 대상으
로 시범사업을 통해 실용화하게 되며 축산농가 경
쟁력 향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FAO 동물유전자원 현황보고서 제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에 한국의 축산현황을 소개한 동물유전자원 현황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축산은 정책적인 측면으로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고도의 숙련되고 전문화된 축산인력의 양성이 가능해졌고 이는 축산농가의 수익 증대에 영향을 주었다.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축산관련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축산농가 수는 10년간 121만 2,495호에서 93만7,127호로 연평균 2.77% 감소했으나 축산물 생산량은 459만8,511톤에서 471만9,305톤으로 0.06% 늘어 농가당 생산량은 3.25% 증가했다. 이는 축산농가의 경제성을 높여 축산물 생산액(경상가격)으로 평가하면 축산농가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6.5%의 생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축산기술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아프리카식량농업협약체(KAFACI), 한·아시아 농식품협약체(AFACI)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축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10년간 과학적 평가를 통해 6축종 24품종의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추가로 발굴해 FAO에 등재했다. 2000년 이전 등재된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포함하면 모두 13축종 59품종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자원으로 등재된 품종에 대한 생산성 등 경제적인 평가

를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해 국내 토착종 입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조영무 장장은 “FAO가 요청한 과거 10년 동안 한국 축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책, 산업적 성장 및 국제협력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수익 향상을 위해 가축유전자원 보존과 발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FAO는 2017년을 목표로 제2차 세계동물유전자원현황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1차 현황보고서는 2007년도에 발간했으며 이를 통해 FAO 회원국은 동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행동계획을 ‘인터라켄 선언’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FAO에 제출한 자료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국역본 및 영문본에 대해서는 별도 출판할 예정이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봉화군-안동·봉화축협과 3자 MOU체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규담, 이하 인증원)은 4월 10일(목),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군수 박노옥)과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권기수)과 ‘축산물HACCP체인 완성 거점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봉화 한우의 전(全)단계 HACCP 적용 축산물 공급체계



(farm to table HACCP chain system)를 완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거점 구축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인증원은 봉화한약우를 생산하는 안동봉화축협 회원농가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교육을 개설하고 전담 심사관을 지정 배치하여 HACCP적용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봉화군과 안동봉화축협에서는 HACCP인증에 필요한 현장업무지원과 예산, 교육장 등 각종 시설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봉화한약우가 지난 해 소비자단체가 인정하는 우수브랜드로 선정되고 1등급 출현율이 최고 수준이 된 것은 모든 농가들의 열정 덕분”이라며 “이번 안동봉화축협과 인증원간의 MOU를 계기로, 축산물HACCP체인 완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최고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담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는 위생안전과 품질에 있다는 확신으로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봉화한약우」의 전(全)단계 HACCP체인이 구축된다면 이는 정부의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에 발맞춰 「봉화한약우」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식탁을 만들 것”이며 “인증원은 현장에서 생산농가 등이 부딪치는 애로사항 해결에 역점을 두어

HACCP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창립 제25주년 맞아 「가치관 경영」 선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 이하 축평원)은 창립 제25주년을 맞아 4월 18일 축평원 대회의실에서 『가치관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가치관 경영은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우치게 하고, 그 의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경영방식이다.

금번 선포식은 기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춰 중장기비전을 재설정함으로써 구성원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축평원 전 직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재수립한 기관의 가치체계인 미션, 비전, 핵심가치가 발표되었다.

*** Mission : 우리는 축산물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 Vision : 창립 30주년, 모든 축산물의 품질·유통·정보를 선도하는 글로벌 No.1 축산전문기관**

이 된다.

*** 핵심가치(Core Value) : 공정, 전문성, 소통, 도전**
금번 가치관경영 선포를 통해 축평원의 임직원은 기관 모든 활동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전 구성원이 공유하여 본인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였다. 허 영 원장은 “창립 30주년의 꿈을 달성할 새로운 기관을 위해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수립한 가치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행동을 넘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가슴 뛰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과의 결의를 다졌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조약정(MOU) 체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정부비축농산물의 기증을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과 소외계층 나눔 실현을 위해 5월 7일(수) aT센터 수급종합상황실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흥봉)와 업무협조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조약정 결과에 따라 aT와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장 격리가 필요한 정부비축농산물이 지역사회 식품 나눔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단체 및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aT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 대상품목과 물량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다.

한편 aT는 작황 및 기상호조로 과잉생산된 배추·무의 시장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수급동향을 고려하여, 수매·비축한 신선배추·무 373톤을 지난 4월, 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푸드뱅크와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한 바 있다. 김재수 aT사장은 “이번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업무협조약정을 통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여 농산물 수급 전문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 실천 캠페인”이라며 “농협에서 전개중인 **식사랑농사랑운동 실천캠페인**으로 함께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협안심축산 “e-고기장터” 개장

농협 안심축산분사(분사장 함혜영)는 5월 2일 농협중앙회 신관 3층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이기수 축산경제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개념 축산물 유통채널인 농협안심축산 “e-고기장터” 개장 행사를 가졌다. “e-고기장터(www.nh-ansimb2b.com)”는 2013년 정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년여의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마치고 이날 사업 시행을 공식화했다. 인터넷 쇼핑몰과 TV 홈쇼핑이 결합된 “e-고기장



터”는 정육점, 식당, 유통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특가상품에 대

한 실시간 홍보는 물론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안전과 위생에 기반한 신개념 축산물 유통채널인 사이버 장터 활성화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